

청소년 롤모델의 진로 조언 ⑤ 황상민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야단맞지 않고 호기심 마음껏 펼치려고 서른 살에 박사 땀지”

‘심리학계의 아이유’로 불리는 남자가 있다. 재치 있는 입담과 넉넉한 웃음을 지닌 연세대 황상민(60·심리학과) 교수다. 그를 만나고 싶다는 사연을 중앙일보 열려라 공부 ‘청소년을 위한 진로 멘토링’에 신청해 은 이유엽(경북고 2)군이 황 교수를 찾아갔다.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이라 상담심리학자가 되고 싶는데 진로에 대한 자신의 이런 생각이 맞는지 확신을 얻고 싶어서”다. 황상민 교수의 심리연구소인 위즈덤센터에서 두 사람이 만났다.

김슬기 기자 rookie@joongnag.co.kr

▶이=교수님은 왜 심리학자가 될 결심을 하셨나요. ▶황=내 꿈은 원래 외교관이었어요. 서울대 사회과학대를 지원했는데, 그때는 전공을 구분해서 뽑지 않던 시절이었거든. 학교에서 정치학과 선배도 보고 외교학과 선배도 만나봤는데 나와는 맞지 않겠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난 소심한 사람인데 정치학과는 데모를 하나까 무섭기도 했고, 외교학과는 ‘인간이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느꼈거든. 그러다 고교 때 심리학자를 꿈꾸던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심리학과는 어떻게든 생각을 그때 했지. 물론 집에서는 부모님이 앞으로 뭐 먹고 살 거냐고 걱정하셨지만 ‘저 먹고 사는 건 제가 걱정할 게요’라고 독립을 선언하며 심리학과를 갔어. ▶이=그때 심리학이 내 걸이던 확신이 오신 건가요. ▶황=학생 때는 좋은 선생을 만나는 게 참

중요해. 스키너 교수를 알고부터 하버드대로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어. 당시 스키너 교수가 하버드대에서 심리학을 가르쳤는데 스키너 교수에게 편지를 썼지. ‘당신 밑에서 공부하고 싶다. 나를 제자로 받아주겠느냐’고. 스키너 교수에게 답장이 왔어.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지원하면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그분으로부터 받은 편지가 하버드대를 가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한 계기가 됐지. 스키너의 모든 책을 영어 원서로 읽고, 책이 나오면 단어를 모두 외우면서 영어 공부를 했어. 전공에서 배우는 심리학 공부도 일부러 한글 대신 영어로 봤지. 하버드대를 갔을 때 스키너 교수는 이미 정년퇴임을 한 상태였지만 이런 내 노력을 지켜봐주는 원동력이 됐지. (이후 황 교수는 하버드대에서 심리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저는 심리학자가 꿈인데 반드시 심리학자를 가야 할까요. ▶황=꼭 심리학과를 가지 않아도 돼. 가고

▶이=심리학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특별한 재능이 있나요. ▶황=난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부끄러움을 많이 타거든. 그런데 ‘호기심’이 강해 그 호기심을 사람한테 적용하지. 심리학 연구를 하려면 호기심이 있어야 하거든.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연구를 해야 사람이 보이는 거 때문이지. 그런데 일반 사람은 호기심을 재는 능력이 없고, 오히려 야단을 치지. 야단 듣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남자는 게 나의 전략이었어. 박사 학위를 받고 나면 누구도 내 호기심에 대해 뭐라 못할 테니까. 내가 심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게 서른 살이야. (심리학자로서의) 인생은 서른부터 시작이지. ▶이=저는 심리학자가 꿈인데 반드시 심리학자를 가야 할까요. ▶황=꼭 심리학과를 가지 않아도 돼. 가고

맞춤형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아시나요

진로·능력개발부터 심리 치유까지 초중생 주말 프로그램 국가가 지원

올해부터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됐다. 주말마다 자녀들과 체험학습을 하기 위해 함께 여행을 다니는 가족 단위 여행객도 늘었다. 반면 주말까지 일을 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들을 주말 특강반, 2박3일 주말 기숙학원 등 학원으로 내모는 일이 많아져 “사회교육 의존도만 더 높아졌다”는 하소연도 한다. 이런 이들을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맞춤형 사회서비스이용권’이 있다. 사회서비스이용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용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하는 것으로 바꾸쳐라고도 부른다. 주말 학습 프로그램의 경우 저소득층뿐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적지 않다.

■정서 발달과 문제 행동 개선=자녀의 심리 정서 발달이 우려된다면 ‘아동 정서 발달 지원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가족 해체 등으로 인해 불안 증세나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약기를 이용한 정서 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클리닉·바이올린·플루트 등의 연주법을 알려주는 클래식 프로그램과 약기를 활용한 자기 표현 활동, 본격적인 놀이·예술 치료를 하는 치유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한다. 클래식 프로그램은 해단 약기를 전공한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가 지도해 전문성을 높였다. 정서 발달 프로그램은 심리·음악·미술 등 예술 치료 분야에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로, 임상경력 500시간 이상을 보유한 전문가가 지도한다. 8~13세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다. 교육비는 매월 20만 원이며, 사회서비스이용권 대상자가 되면 국가에서 월 18만 원을 지원해준다.

■교과서 체험학습=‘아동 주말 체험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교과서에 나오는 유적지 등을 탐방하는 등 의미 있는 주말 체험학습도 가능하다. 교과서에 언급된 주요 시설을 견학하고 다양한 인물을 직접 만나 교과서 내용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

■리더십과 진로 개발=초·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자녀의 진로와 적성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 지원 서비스’는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사회·문화 체험학습과 커리어 코칭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하고 미래 비전을 형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프로그램의 목표다. 교육학·아동청소년학·사회복지학 등을 전공하고 청소년 상담사 등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이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7~14세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이용료는 월 14만 원이며, 사회서비스이용권 대

정보마당

와이즈먼은 ‘우수 도서, 우수 교구 특별 할인전’을 연다. ‘현미경+프레파라트 세트’는 30%, ‘초등과학 뒤집기’ ‘초등수학 뒤집기’ 세트는 42% 할인가에 판매한다. ‘현미경+프레파라트’는 창의적인 포트폴리오 제작을, ‘초등 과학/수학 뒤집기’는 스토리텔링 수학·과학 융합교육을 도와주는 교재다. 02-2033-8800, www.askwhy.co.kr

ESL 교육기관 청담러닝의 ‘청담 비전센터’는 전국 순회 프로그램이 오는 27일부터 전국 4개 지역에서 개최된다. 『그림판 공부법』 저자 조승연씨, 미국 명문대생들이 만든 글로벌 소셜네트워크 ‘유태카(YouthECA)’ 등이 참여해 난민의 비전 스토리 수집법에 대해 얘기한다. ▷27일 오전 10시30분 대전 둔산사학연극회관 2층

CMS에듀케이션은 6월부터 서울 마포구 대릉동에 영재교육센터를 개설한다. 26일 M밸리 스웨딩홀(마포역 1번 출구)에서 설명회를 진

행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석하는 학부모에겐 BPT(인지능력검사) 무료 검사권, 전국진단 평가 무료 검사권, 관찰추천제, 영재학교·영재 교육원 자료집 등을 제공한다. 02-713-1288, www.cmsedu.co.kr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는 한국방송통신대 경기지역 산학협력단과 교육산업 협약을 체결했다. 독서지도사 양성과정, 기초 논술지도사 과정, 대입 논술지도사과정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운영하며 독서지도사 취업 연계까지 지원한다. 교육프로그램은 6월부터 성남 분당, 수원 정자, 서울 성수 등 3개 산학교육센터에서 개강한다. www.hanuricampus.com

도시출판 휘슬러는 미국 아이비리그 석학들



KBS방송국을 방문해 영어 체험을 하고 있는 학생들. [사진 모던학교]

Table with 4 columns: 서비스, 주요 제공 기관, 홈페이지, 연락처. Lists various social service programs and their providers.

학생 지도는 인문학·관광학·아동청소년학·자연과학·사회복지 등을 전공하고 청소년지도사나 문화체험지도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이들이 맡았다. 이 프로그램은 8~14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월 이용료는 10만 원이다. 사회서비스이용권 대상자는 1년간 매월 9만 원씩 국가에서 지원해준다.

■신청 방법과 대상=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의 초·중생이 지원 대상이다.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이 438만7000원 이하인 가정은 모두 신청 가능하다. 거주지의 읍·면·

동사무소를 방문해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발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받는다. 국가에서 매월 서비스 이용료를 카드에 입금해주는 형태다.

교육프로그램은 지역마다 종류와 내용이 다르다. 서비스 신청 전에 거주지 동사무소 등에 연락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서도 자신의 거주 지역의 사회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nag.co.kr

과 국내 교과서 집필 교수들이 개발한 융합사과력 교재인 『사이언스』 시리즈 선 수령 후 결제 할인행사를 연다. 유아영재초등용 『사이언스 신 목록』과 초등 고학년과 중학생용 『사이언스 오디세이』를 25~30% 할인 판매한다. 『지도로 읽는 세계사』 등 사은품도 제공한다. 02-2115-3500, www.용합인재교육.com

Large advertisement for '1 위 밴쿠버여행' (1st Place Vancouver Travel) featuring a cityscape and a person kayaking. Includes text about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and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인 항공권'.

Large advertisement for '모든학교' (All Schools) featuring a young girl writing and another girl with a telescope. Text includes '주말까지 사교육입니까?' and '주말에는 산교육입니다!'.